

KIA, 경기당 4.5득점하고 7.2점 줬다

4월 21게임 6승1무14패...마운드 붕괴·타선침체에 무기력
선발·불펜·야수 실책 도미노... 승기 잡은 게임도 번번이 놓쳐
팀 평균자책점 6.87·팀 홈런 최하위...투·타 안정 찾기 시급



KIA 타이거즈의 '잔인한 4월'이었다.

KIA는 지난 30일 경기를 제외한 4월 21게임에서 6승 1무 14패를 거두는 데 그쳤다. 한때 9연패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 등 4월은 패배의 달이었다.

선발진의 붕괴가 가장 치명적이었다. 팀의 에이스로 활약해왔던 양현종이 등판한 4월 4경기에서 팀은 모두 졌다. 양현종은 4월 한 달 20.1이닝을 책임지는 데 그쳤고, 평균자책점은 9.82까지 치솟았다. 3월 2패까지 더하면 양현종은 승 없이 5패만 기록하고 있다.

새 외국인 선수 월랜즈와 터너도 4월 29일 현재 1승만 만들어냈다.

3월 27일 한화전에서 팀의 첫 선발승 주인공이 됐던 월랜즈는 4월 2일 삼성 원정에서 2승에 성공했지만 이후 승수를 더하지 못했다.

월랜즈는 4월 10일 NC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선발진 중 가장 많은 이닝도 책임져줬지만 승리는 행하지 못했다.

3월 두 차례의 등판에서 2패만 기록했던 터너는 4월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다.

4월 5일 키움전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며 첫승을 신고하는 것 같았지만, 필승조로 역할을 해주던 하준영의 불펜세이브가 나오면서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4월 12일 문학 원정에서도 승리투수 요건은 갖췄지만 이번에도 하준영이 불펜세이브를 기록했다. 4월 24일 LG와의 잠실 원정에서는 수비진의 실수 연발에 5회를 채우지 못하고 강판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IA에서는 선발승 보기가 힘들었다.

4월 21경기에서 겨우 6승이 남았고, 이중 선발승은 2승에 불과했다. 월랜즈와 함께 대체 선발로 출격한 홍건희가 시즌 첫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귀한 선발승 주인공이 됐다.

나머지 4승은 불펜에서 기록됐다. 4월 21게임의 KIA 팀평균자책점은 6.87이다. 또 경기당 평균 6개의 사사구를 기록하면서 129개의 사사구가 남았다.

수비 실수까지 묶어 KIA는 21경기에서 151실점을 했다. 경기당 평균 7.2점을 내줬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KIA는 95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 평균으로 따지면 4.5점. 실점에 비해 한참 부족한 득점 탓에 KIA의 패배가 쌓였다.

홈런은 13개만 기록됐다. 3월 나온 4개의 홈런까지 더해 KIA는 롯데와 함께 팀홈런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13개의 홈런 중 깜짝 홈런도 많았다. 한승택이 대타 만루 홈런 포함 두 경기 연속 손맛을 봤고, 박찬호와 이창진은 프로 데뷔 홈런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기도 했다.

하지만 안치홍, 김주찬 등 기대했던 이들의 한 방은 없었다.

최약의 4월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기회를 얻은 젊은 야수진이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세대 교체'의 걱정을 덜어줬고, 위기의 마운드에서도 하준영, 문경찬, 전상현 등이 가능성을 보여줬다.

KIA가 잔인했던 4월을 뒤로하고 꽃같은 5월을 맞을 수 있을지 사람들의 시선이 챔피언스필드에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키움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5회말 KIA 타이거즈의 대진코치(왼쪽부터)와 한승택, 홍건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덕아웃 T 특특

마무리 문경찬 "볼 끝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야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야죠 = KIA는 김윤동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문경찬에게 마무리 역할을 맡겼다. 자신 있는 피칭이 감점인 문경찬은 지난 27일 키움전에서 6-4로 앞선 9회말에 출격해 첫 마무리 역할을 수행했다. 문경찬은 박동원에게 안타는 맞았지만 실점 없이 2점의 리드를 지키며 생애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문경찬은 지난 30일 삼성과의 경기에 앞서 "혼신의 힘으로 던졌다. 맞아도 직구로 맞자는 생각이었다"며 "평소에 등판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공을 던졌다"고 언급했다.

▲고등학교 때 하던 방식이죠 = KIA 내야 대세인 박찬호는 기대 이상의 타격으로 매일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선빈이 부상으로 빠

져있는 동안 유격수로 뛰었던 그는 이후 2루와 3루에도 서고 있다. 지난 28일 키움전에서 박찬호는 3루수로 나와 재치 있는 수비로 박수를 받았다. 0-1로 뒤진 3회말 1사 2루에서 김하성의 우익수 플라이가 나왔다. 이때 2루 주자 이정후가 스타트를 끊어 3루로 향했고, 우익수 박준태가 3루로 강하게 공을 던졌다. 우익수를 등지고 있던 이정후는 박찬호가 특별한 동작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느긋하게 움직였고, 그 사이 공을 잡은 박찬호

가 이정후를 태그하면서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상대 허를 찌른 박찬호의 재치있는 수비였다. 박찬호는 "고등학교 때 하던 플레이를 써먹었다(웃음). 그런데 팀이 져서 아쉽다"고 돌아봤다. 박찬호는 또 "고등학교 때 팔이 아파서 2루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2루가 가장 어색하다. 주루 선상이라 그라운드도 고르지 않고 힘든 게 많다"며 "3루는 어려운 자리다. 그래도 투수처럼 던지는 재미가 있다. 송구는 더 재미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0승 하겠어요 = 선발진의 부진 속에 KIA의 다승 1위는 하준영이다. 하준영은 지난 27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4-4로 맞선 8회 2사 1루에서 출격해 장영석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어진 9회초 공격에서 KIA가 2점을 뽑아냈고 경기가 6-4승리로 끝나면서 하준영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시즌 3승째였다. "이러다 10승하겠다"며 웃은 하준영은 "승리도 좋지만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홈드를 기록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부진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내 공을 던지는 것은 똑같았다. 분위기가 좋게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수창초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자축하고 있다. (광주시야구협회 제공)

수창초, 광주 초등야구 평정

광주시소프트볼협회장기 대회 우승... 14일부터 중학 야구대회

수창초가 2019년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수창초는 최근 분당리투구장에서 끝난 협회장기 대회에서 3연승을 달리며 대회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우승팀 학강초를 포함해 7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로 치러졌다. 수창초는 첫 상대 학강초를 10-0으로 제압한 뒤 화정초에 4-1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마지막 상대 대성초도 3-2로 꺾으면서 대회 우승팀이 됐다. 한편 2019년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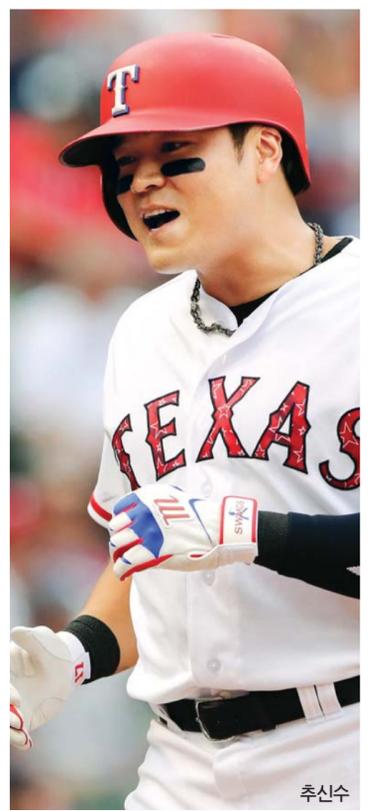
중학교 야구대회는 오는 14일부터 무등경기장에서 3일간 열린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이정우(수창초) ▲우수투수상: 류연재(수창초) ▲타격상: 이태훈(7타수5안타/0.714-대성초) ▲최다도루상: 박예찬(5개-수창초) ▲최다타점상: 이태훈(6타점-대성초) ▲감독상: 양준영(대성초) ▲미기상: 김두교(대성초) ▲감독상: 류창희(수창초) ▲지도상: 이영미(수창초 부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내 나이가 어때서'

올 37세 텍사스 최고령...출루율 0.420 팀 2위·타율 0.330 팀 3위

미국프로야구(MLB) 텍사스 레인저스 25인 로스터에서 추신수(37)보다 나이 많은 선수는 없다. 오는 7월 14일이면 37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추신수가 올해 써 내려간 성적은 나이를 무색하게 한다. 추신수는 정규리그 개막 후 3~4월 타율 0.330을 쳐 팀 내 타격 3위를 달린다. 출루율은 0.420으로 중심 타자 엘비스 안드루스(0.426) 다음으로 높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0.997로 11살이나 어린 조이 겔로(1.032), 안드루스(1.022)에 이어 팀 내 3위다. 아시아 타자들은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빅리그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올린 성적이라 더욱 값있다. 기록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레퍼를 보면, 추

신수는 올해 현역으로 뛰는 선수 중 최고령 순위 14번째에 자리했다. 37세 이상 타자들의 시즌 성적을 보면, 추신수의 활약상을 짐작할 수 있다. 푸홀스는 시즌 타율 0.230에 출루율 0.330에 머문다. 크라츠는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도 못해 타율 0.143에 그쳤다. 크루스는 홈런 5방에 타율 0.297, 장타율 0.568로 시원하게 방망이를 돌린다. 그랜더스(타율 0.182·3홈런), 조브리스트(타율 0.239), 킨슬러(타율 0.139·2홈런)의 방망이는 예전만 못하고, 몰리나는 타율 0.267, 타점 19개, 홈런 2개로 제 몫을 해내는 중이다. 한편 추신수는 1일 오전 9시 5분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홈경기에 출전해 강정호(32·피츠버그)와 방망이로 대결한다. /연합뉴스



추신수

김태형 두산 감독 벌금 200만원 KBO '롯데 선수단에 욕설' 결론

경기 중 상대 팀 선수단에 '막말'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52)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KBO는 지난 30일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상벌위는 상대 팀 선수단에 욕설 등의 폭언을 한 김 감독에게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김 감독과 사령탑끼리 설전을 벌인 양상문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도 상벌위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연합뉴스